

## 내년 주요 SOC예산 1조7,925억원 확보

도는 14일 내년도 주요 SOC사업 예산 1조7,9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1,873억원을 추가 확보한 금액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동해역시설개량(17억원), 동서평화고속도로(5억원), 국도 5호선 춘천~화천(5억원), 국도 31호선 남면~원통(5억원), 국

도 59호선 정선3교(2억원), 국도 56호선 지촌~사내(5억원), 홍천서석우회도로(2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65억원)를 비롯해 원주~강릉철도(3,040억원), 여주~원주철도(22억원), 동서고속도로(1,650억원) 등이다.

이성현기자 sunny@

# 강원상품권 실효성 논란... “가맹점 확보가 우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정기 이사회  
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유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강원상품권 발행을 놓고 일부 경제단체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돈진·이하 강경연)는 14일 오전 춘천 산토리니에서 창립 이후 첫 정기 이사회를 갖고 회비부과, 회원가입,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2017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강원상품권 발행 문제가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강원상품권 발행에 대한 취지와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강경연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회들은 가맹점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이사회가 14일 오전 춘천 산토리니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상황에서 강원상품권이 발행될 경우, 대금 지급 불안과 하도급 업체로의 상품권 밀어내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강경연과 강원도가 조만간 체결하기로 한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은 잠정 유보됐다. 추

가 회원가입과 ‘2017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30만원의 회비안만 의결됐다. 한편 축산기업중앙회 도지회가 강경연 탈퇴를 통보함에 따라 회원사 수는 종전 35개사에서 34개로 변경됐다. 안은복 rio@kado.net

## 내년 SOC 사업 1조 7925억 투입

원주~강릉철·동서고속도로 등

내년에 강원도내 주요 SOC사업에 1조 7925억원이 투입된다.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완공되는 원주~강릉철도와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건설사업에 각각 3040억원과 16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여주~원주 철도사업(22억원)과 춘천~속초고속화철도(65억원)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원주~제천철도(2300억원)와 포항~삼척철도(3700억원), 경원선 복원사업(845억원)에도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다. 기존선 고속화 사업에도 74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올림픽 지원IC개량사업(88억원)과 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사업(1517억원)도 추진한다.

국도5호선 춘천~화천(5억원)과 국도56호선 홍천서석우회도로(2억원), 국도42호선 정선3교(2억원)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

동서평화고속도로(5억원)와 국도31호선 양구~원통(5억원), 국도56호선 지촌~사내(5억원), 국도59호선 단양~영월(78억원)은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 백오인